이렇게 들었다

방송의 종교왜곡

"화합 깨는 악행 말라"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자신의 일에 태만하며 편하게 살지 말라. 비록 고생을 할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다섯 가지 역죄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자신의 직무에 태만한 일이다. 이런 것을 오역이라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방광십륜경>

인천방송이 17일 방영한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는 시청자들이 체험한 불가사의한 일이나 영적 체험에 대한 수기를 극으로 꾸민 프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님과 불교를 왜곡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던 어느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아주머니의 딸이 귀신이 있다고 울먹이며 괴로워 하고 있었다. 놀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병원으로 옮기지만 병원에 들어서자, 그녀의 몸속에서 소리를 지르던 할머니의 혼령은 병원에서 나가면 그녀의 몸속에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그녀의 몸속에 들어 있는 혼령을 본 스님과 무당이 겁을 내며 혼비백산해 도망갔다. 하지만 신부가 십자가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하자 편안히 잠드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제보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내용이다. 프로그램의 속성상 흥미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님을 귀신에 쫓겨 도망가는 성직자답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스님이 도망가는 장면 뒤에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에게 평정을 되찾게 해주는 장면을 구성해, 마치 신부가 스님보다 훨씬 영적이고, 가톨릭이 불교보다 우월한 종교라는 인상마저 심어주었다. 명백한 불교 폄하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면, 중생심을 잊고 타락의 늪에 빠져 들게 된다"며 올바른 생각과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TV 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보는 대중매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작진의 작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다. TV뉴스시간마다 방영되는 테러전쟁을 인천방송 제작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시청하는지 묻고싶다.

김주일기자

땅에 떨어진 동방예의지국의 위신

불자 세상보기

청소년 어른 존경심
아·태지역 중 꼴찌
어른부터 모범보여야

우리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나라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가 나왔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17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17%만이 어른을 존경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친밀성의 공간이 협소해지고, 더욱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과 정보사회로 인한 개인의 파편화 분절화 등 다문화주의적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사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꼴찌가 아니라, 평균치 72%에 비교하면 너무나 심각한 꼴찌라는데 있다. 왜 그럴까? 선생님 말씀보다는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종교적 메시지보다는 생명공학 기술을 신뢰하며, 진지한 지식인의 자세보다는 신지식인의 코미디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존경 없음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 아닐까?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권위는 신분사회적 유물로 매도되고, 전통은 보스와 일맥상통하는 악이다. 현대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진보고 선이라는 야단적인 이분법이 별다른 저항없이 관철된다.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편싸움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어른들을 존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면 우리 사회의 이런 저런 청소년 단체는 충효사상·국가관 교육 등의 중요성을 외치며, 정신은 없고, 구호만 남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일 것이다. 색깔논쟁에 여념이 없던 신문은 '청소년 문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처방을 기사화할 것이고, 저녁마다, 주말 내내 웃기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멍청하게 만들기에 앞장서던 TV는 근엄한 자세로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이다(그것도 청소년들이 안보는 시간에).

서양어의 '리스펙트'는 '다시 본다'는 뜻이다. 어원에서 보듯이 존경심이란 타인의 개성을 주목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싫듯이, 존경은 신뢰에서 나온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만 하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깡패와도 손잡는 세상에 무슨 염치로 아이들에게 '리스펙트하라~!'고 말할 것인가?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조상들을 끌어안고 산다. 마을의 중심에는 동상이 있고, 후손들은 늘 동상과 함께 산다. 우리 민족은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조상 섬기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지만, 알고 보면 귀신 숭배다. 정녕 숭배해야 할 자기 조상과 역사 속의 어른들의 정신은 다가서기 어려운 산속으로 내몰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거니는 서울 거리에서 유관순을 볼 수 없다. 안중근 의사, 외솔 선생, 백범 선생도 우리 가까이에 없다.

처방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먼저 역사 속의 어른들의 정신을 존경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일(忌日)에 제사만 지내고 잊어버려도 좋은 그런 곳에 모시지 말자.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엄숙한 제단에 모시지 말자. 산 속에 유폐된 무수히 많은 저 어른들의 정신을 백화점 입구에, 지하철역에, 버스정거장 앞에 모시고 더불어 살자.

열 린 마 당

원주경찰서 불상봉안 반대

원주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지난 14일 원주경찰서내 경승실에 봉안된 불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불교계는 원주시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상 봉안의 적법성을 이해시키고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묵빈대처(默擯對處)'식의 대응보다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두 입장을 들어본다.

"기독교계 자제 종교갈등 막자"

현각스님 〈종교화합 원주비대위 대변인〉

경찰서 내에 있는 경승실은 경찰불자들과 스님들이 신행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공간이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경승실내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자유롭게 법회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며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불상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독교계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승실내에서의 종교적인 자유는 엄연히 경찰 예규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경찰청 예규 제267호 제5조(직무)에 따르면 '경승, 경목 등은 소속 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고, 각종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불상철거는 이러한 경찰청 예규를 잘못 해석한데에 따른 것이다. 굳이 이런 예규가 아니더라도 현재 전국 경승실중 54곳에 이미 불상이 봉안돼 있으며, 경목실 58곳에도 십자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기독교계를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딪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강경대응은 자칫 종교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성철스님께서는 "교회에서 염불소리가 나고 법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 하셨다. 각자 종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상호존중의 미덕을 갖추는 것이 21세기를 화해의 시대로 이끄는 길이다. 원주 기독교계는 불상철거 주장이 경찰청 예규에 대한 종교의식간의 오해로 비롯된 문제임을 직시해 자칫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게 자제하기를 당부한다.

"불교 모독 행위…강력 대처를"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기독교계의 원주 경찰서 불상 철거 주장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불상 봉안이 기독교계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철거를 운운하는 것은 불교계를 모독하는 행위다. 또 경찰서 내에 경승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목실도 똑같이 마련돼 있는데 불상을 봉안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종교 편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교계는 계속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현재 원주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가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후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포교원 등 교계의 여러 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강경한 논조의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원주비상대책위의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지침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향후 또 일어났을 때 빠르게 응집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런 결집은 불교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범종단 차원에서 종교편향문제만을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한두 사람의 힘 만으로는 종교편향 문제에 대응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온건한 대처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교를 폄하하는 잘못된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고하게 대처해야 한다. 범 종단 차원에서 '불상 철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불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도 언론지상을 통해 진상을 알려 기독교계의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인가를 널리 알려야 한다.

기고

"대학 도서관 시험공부방 전락 古典엔 먼지만"

김종철
동국대 도서관 과장

대학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다. 그래서인지 그 중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곳이 도서관이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도서관에 발걸음을 끊어 버린다.

도서관은 고전이나 심오한 학술서 뿐 아니라 최신 문학 작품,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읽을거리들을 모아둔 곳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은 드물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의 잘못 때문이다.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인 암기 실력만을 평가한다. 그러니 학생들은 벼락치기 시험공부로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다. 평소 수업 시간에 토론을 많이 하고, 평가도 그 학생의 발표력과 이해의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벼락치기 시험공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에 먼지가 뽀얗게 앉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해마다 가을 독서 주간에 다독자 2명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책들은 감각적이고 가벼운 읽을거리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N세대라고 해서 만화와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와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도 흥미위주의 것들이 많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오는 25일까지 '불교관련도서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한다. 작은 행사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여 어릴 때부터 좋은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책 읽지 않는 국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책 읽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봉 시흥 소래산 마애불상 보물지정 국태민안 시연 대법회 축

시흥 소래산 보물 제1324 호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 후 원 : 시흥시청, 시흥사암연합회, 삼각산도선사, 경인방송
■ 행사일시 : 2001년 11 월 4 일 (일요일.음 9월19일)
■ 행사문의 : (031) 313-2993, (031) 404-0707 ~ 9
■ 행사장소 : 시흥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지

국가문화재 보물 제1324호기념 영산대제! 님을초대합니다

법 어 서암(西庵) 前종정예하
추 진 위 한국 마사회 윤영호 회장
스위스관광호텔 윤상림 회장
김의계 교수(한양대학교)
정룡사 조실 진혜명 스님
삼각산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정룡사 주지 삼보스님
큰 스 님 차동광스님 혜덕스님 법공스님
인봉스님 보명스님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총 신도회
시흥시 사암 연합회
대한불교 연예인 자비회
정룡사 총 신도회
시흥시청

마애여래부처님의 유래

시흥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신라 무열왕 660년에 중국 산동성의 래주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여 소래산을 보니, 산의 氣道가 비범하여 서기 가득한 장군바위에 마애불을 모시고 그 옆터 북동쪽 300m 지점에 曉日寺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로부터 소래산이 소정방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학자 권상로박사의 한국사찰전서 효일사조에서 부기하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뒤받침 해주고 있다.

마애여래부처님의 영험담

소래산 마애보살은 영험하여 이곳에서 祈禱하여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近來 어떤 巫女는 이곳에서 기도하여 북한 김일성의 죽음을 미리 알았으며, 부도 직전의 사업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부도를 모면 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번창한 사람이 있으며, 노 보살님 한분은 이곳에서 기도하여 아들이 대령으로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6.25전란 당시 영국군 캘러부대가 이 앞의 방아다리에 주둔중 105mm 곡사포를 여섯 발을 쏘았으나, 신기하게도 마애보살님의 상호를 피해서 맞은 흔적으로 크나큰 위신력을 보이시니,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에 오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마애보살이 여기 소래산 장군바위에 마애보살님으로 세간에 출현하심이니, 이는 보고 경배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그 공덕이 항하사겁이 지나도록 다하여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서, 자식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니, 보고 들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우러러 예불하여 인간과 천상에 이익이 무량하게 합시다.

동참문(同參文)

천년 전부터 계시던 마애보살님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험하고 영험하신 마애보살님의 원력 가피력으로 국가보물제1324호로 지정 받아 기념 봉축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애보살님을 모시던 효일사의 "중창복원불사"는 여러 단체들의 개입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저희 "천년고찰 효일사 중창복원 위원회"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동참하겠다는 본인 의사와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등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2001년 10월 27일 까지 동참한 분들께는 행사 초청장과 2002년도 달력을 우송해 드리며,
2001년 11월 4일 행사이후 동참한 불자님들께는 마애보살님 보물지정 기념 2002년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9-84번지
② 팩 스 : 031-311-4717
③ 이메일 : bigsambo@hanmail.net